

어른 된 딸, 엄마와 함께 첫 투표 추억 '인증샷'

대학생은 과제물로...초등생은 숙제로 곳곳 '찰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표합니다. 첫 투표라 인증사진도 찍어 평생 추억이 될 것 같아요.”

4일 지방선거 투표 현장에는 투표 참가 독려 활동의 영향으로 인증샷을 찍는 시민들로 붐볐을 이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광주 서북구 서산초교 오지2동 제3투표소 앞에서 임씨는 (여·21·호남대 작업치료학과 2년)씨는 투표를 한 뒤 어머니와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 ‘공명’ 앞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었다. 임씨는 담당 교수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전송했다.

임씨는 “인증샷이 ‘차세대 리더와 한국의 선거’ 라는 교양 과목 과제물”이라며 “첫 투표라 의미도 남다르고 강의시간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비교할 생각을 하니 기대된다”고 즐거워했다.

임씨 어머니 김정아(45)씨는 “처음으로 딸과 함께 투표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미뤘다”면서 “투표 전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으로 후보 검색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임씨 뿐 아니라 호남대 교양학부 학생 48명은 모두 투표장을 찾아 ‘인증샷’을 찍

었다. 젊은층의 투표 독려를 위해 ‘투표 인증샷’을 대학 과제물로 제출하도록 한 담당 교수의 아이디어도 한몫을 했다.

고재익(58·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는 지방선거 투표는 청년의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차세대 리더인 청년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현장을 더 세밀히 체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과제를 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이날 오후 4시15분까지 전체 수강생 48명 중 3분의 2가 넘는 학생들이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거나 투표소 표지를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보냈다고 했다.

풍암초등학교 4학년 김 건(11)군도 이날 아빠와 함께 투표장을 찾았고 살레시오초교 5학년 이석준(12)군도 “투표소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어오라는 게 숙제”라며 엄마(46) 손을 잡고 투표장을 찾았다. 이군은 투표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안내소에 비치된 기표 도장을 손등에 찍어보고 투표소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이석준군이 투표장에서 엄마와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에 올린 인증샷.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업체 담합 정황 포착

2개업체 가격 미리 조율한 듯 檢, 철도공단 목인 여부 조사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특혜를 받거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검수사1부(김후근 부장검사)는 2012년 7월 삼표이앤씨와 궤도공영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업체로 선정될 당시 가격을 미리 조율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송~익산(1공구), 익산~광주송정(2공구)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 입찰에서 두 업체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입찰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1공구는 궤도공영 컨소시엄이, 2공구는 삼표이앤씨 컨소시엄이 예정가격의 89.03%, 89.48%를 적어내 수주했다.

검찰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투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해 두 컨소시엄에 공사를 맡겨주고 수수액을 나눠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업체들로부터 압수한 입찰 관련 기록들을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목인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독일에서 레일제결장치를 수입해 납품하는 AVT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레일제결장치는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켜 열차주행의 하중을 완화하는 철로의 핵심부품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레일제결장치의 성능유지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해 경쟁업체를 배제시키고 AVT에 사실상 독점 공급권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광재(58) 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들이 AVT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체실장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은 정계를 남탈해 노조와 갈등을 겪다가 입기를 7개월 남겨둔 지난 1월 사임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출 기름기, 우이산호 때와 비슷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기름 유출에 따른 바닷물의 기름기(유분)가 지난 1월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4월 19일~5월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부근 해상에서 1차 긴급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닷물의 유분이 최고 14.0ppb(10억분율), 평균 2.95ppb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우이산호 총동사고 때 바닷물 기름기는 최고 16.3ppb, 평균 5.3ppb이었다.

해수부는 “바닷물 속의 유분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시료 42점 중 1점을 제외하고는 해역 관리기준인 10 ppb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산용수기준 권고기준치에서는 수중에 유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바지락 등 이매패류 내의 PAHs

(화학연료에 포함된 벤조피렌 등 인체유해물질)의 농도는 721~1천129ppb, 평균 926ppb로, 식약처 조개류 섭취기준의 1/60 수준인 만큼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PAHs 농도는 세월호 사고 후 약 4.1배 증가한 반면 우이산호 사고 때는 약 34배가 증가했다고 해수부는 말했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긴급 해양오염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식장의 안전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미역, 톳 등 해조류 양식장 조사결과 PAHs는 최고 13.9 ppb이었고, 벤조피렌은 한 곳에서 0.14 ppb가 검출됐다. PAHs는 국내 기준치가 없고, 벤조피렌의 경우 해조류 기준은 없으나 어류 2ppb, 갑각류 5ppb다. /연합뉴스

보성서 투표 마치고 나온다

60대 갑자기 쓰러져 숨져

4일 오후 5시40분께 보성군 북내면 친환경경북지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문모(69)씨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문씨는 이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투표를 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문씨가 평소 고혈압과 심장관련 질환이 있었다는 주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거짓 거소투표 신고 후 대리투표

도선관위, 이장 등 5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대리투표를 한 신안군 이장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부정하게 거소투표를 신고한 후 투표용지를 중간에 탈취, 대리투표 등을 한 혐의다.

신안군선관위는 또 군수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의 허위 지지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B씨를 고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평택항서 투표함 옮기는 선관위 관계자들

제6회 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오후 진도군 평택항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조도, 동·서 거차도 등에 설치된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수중 수색 재개

선미 창문 절단작업·선수 부분 잠수 수색 실시

평택항에서 중단된 세월호 사고 현장의 수중 수색이 4일 재개됐다.

법정부사과대책본부에 따르면 88바지와 언딘바지가 이날 새벽 5시 30분께부터 서거차도와 섬등표항을 차례로 출발, 오전 10시 15분께 현장에 도착해 오전 중 및 고정 작업을 마쳤다.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을 한 뒤 오후 7시 30분께까지 4층 선미 창문 절단작업과 선수 부분 잠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4층 선미 다인실은 창문 세 칸 크기 중 창문과 창문 사이를 잇는 창틀 2곳 90cm 가량이 남아 있었으며 이날 유압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작업으로 이르면 다음날 오전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는 절단한 외판을 인양한 뒤 내부의 대형 장애물을 밖으로 끌어내고 수색할 방침이다.

선수·중앙 부분의 외판은 절단하지 않고 이불, 매트리스 등 불필요한 장애물을 선체 밖으로 치운 후 카메라, 소나를 활용해 객실별로 수색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이 같은 수색 방법을 놓고 가족들과 협의 중이다.

한편 이날 선수와 중앙부에 대한 잠수수색에서 실종자 추가 수습은 없었다.

대책본부는 다음 정조 시간인 5일 0시 30분께 기상을 고려해 다시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장성 요양병원 대표 구속영장 신청...수사 속도

압수물품 분석 후 부인·딸 사법처리 수준도 결정기로

결박 은폐 의혹 담양소방서장 “보고받은 것 선불리 말해 죄송”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성전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경찰이 효사랑병원 이사장(53)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특히 효사랑병원 외에 이 대표가 실질적 운영자인 광주효은요양병원을 비롯, 장성군 보건소·민간 소방점검업체 등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 관련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지방경찰청 방화참사 수사본부는 병원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해 29명의 사

상자를 낸 데 따른 책임을 물어 긴급체포한 이사장 효사랑병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병원 환자 서류 등을 빼돌리도록 지시하고(증거인멸 교사), 적정 의료인력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남 긴급체포한 김모(여·47) 광주 효은병원 행정 부원장, 김 부원장의 지시로 병원 서류를 타당에 숨긴 김모(여·47) 간호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위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성경찰청 방화 참사 당시 적어도 2명 이상 손이 묶인 환자가 있었다는 소방관·경찰 등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결

박된 환자는 절대로 없다”며 적극적으로 부인, 은폐 의혹이 제기된 이민호 담양소방서장 및 파출소 경찰에 대해서도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이 소방서장은 경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져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내가 파악하고 보고받은 것을 사실로 믿고 선불리 말했다”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장성군청, 장성보건소, 담양소방서, 장성경찰서, 소방점검업체 등 요양병원 방화참사와 관련, 수사 대상에서 예외는 없다”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헤어진 애인 찾으러 왔다”며 모텔 객실문 두드리며 소란



○...“헤어진 애인을 찾으러 왔다”며 모텔 객실 문 열어나가던 주인에게 발각되자 소란을 피우면서 6시간 동안 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

○...김씨는 3개월 전 헤어진 애인과 모텔에서 생활해 오던 중 애인이 갑자기 사라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담당 경찰은 “이번까지 일곱 번째 경찰서를 왔다. S모텔에 애인이 없는데도 막무가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4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여·49)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10분께 광주 서북구 운암동 노모(여·51)씨의 S모텔에서 손님인 김모가 있는 여러 곳의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44, 달출 11:49, 달짐 00:04

미세먼지 '보통'

구름 낀 곳 많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구름 많음	18/28
보성	구름 많음	18/25
목포	구름 많음	18/25
순천	구름 많음	18/27
여수	구름 많음	18/23
영광	구름 많음	18/27
나주	구름 많음	17/28
진도	구름 많음	18/24
완도	구름 많음	18/24
전주	구름 많음	18/25
군산	구름 많음	18/25
강진	구름 많음	18/25
남원	구름 많음	17/24
해남	구름 많음	18/25
흑산도	구름 많음	17/22
장성	구름 많음	17/27

◇지역별 날씨(℃)

지역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남부	면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	면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면바다 북동~동 1.5~2.5	북~북동 1.0~2.5

◇바다 날씨

항목	밀물	썰물
목포	06:44	12:17
여수	19:00	00:00
	01:26	07:40
	13:51	19:57

◇생활지수

식중독	65
운동	10
빨래	20

◇주간 날씨

날짜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날씨	☀	☀	☀	☀	☀	☀	☀
기온	17/30	18/29	18/28	19/28	18/28	18/28	18/28